무한경쟁시대, 기술개발만이 살 길이다

오영황 | 감사

가치창출의 제고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

硏硏硏 지난해와 올해 우리나라건설업계의 판도재편이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음은주지하는바이며, 올해를기해건설산업전반에걸쳐생존과도태를넘나드는치열하고, 보이지않는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한해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 회사의 재도약과 장기적성장을위해서는금년이참으로중요한고비가될것으로생각된다. 무한경쟁시대, 기업경영의요체는조직원전체의패러다임의대전환과경영인프라의적기확보및과감한활용에있다고하겠다.

한편경영인프라의구축과정에서필히고려해야할사항은, 과연회사가그러한신 기법또는시스템을적용할만한상황에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이다. 그렇치 않고 그러한 이해없이경쟁사가 하니까, 계열사가 한다니까 등의 이유로 무조건 시작하고 보는 식은 금물이며, 지식경영 · 정보화 · 고객중심프로세스및직원업무중심의프로세스등회사의핵심역량을강화하기위한중장기계획에입각한단계적이고체계적인구축및개발과도입된인프라의실용화로가치창출의제고를실현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건설CALS제도 도입에 철저히 대응해야

硏硏硏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건설공사의발주단계에서부터완공에이르기까지모든과정과관련자료를발주자및관련업체가정보통신망을통해교환, 공유하는‘ 건설사업지원 정보통신시스템(건설CALS =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999년 말까지인허가 EDI(전자자료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및 입찰계약EDI 구축과전자문서서식의표준화를마쳤다.

또한 금년 말까지 건설관련정보유통망 디지털화, 기자재 전자조달통합시스템개발, 도면및통신표준화등을완료하고주요국책사업의발주자와주계약자를대상으로적용하며, 2005년말까지멀티미디어 표준화작업 완료와 일정한도 이상 대형공공건설사업에 적용하고, 그이후모든공공건설사업에전면적으로적용하게된다. 따라서동제도도입에따른유기적인연계시스템의개발과업무프로세스의재설계등을적기에진행함으로써철저히대응해가야할것이다.

업무패턴을 과감히 바꿔야

硏硏硏 국내기업의대부분이많은비용을투자하여경영혁신을 위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실시하였으나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40%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BPR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필수적 요인으로는 최고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과 전 조직구성원이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지속적인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이다. 이럴때야만이 BPR이성공한것으로분석되었다.

오늘날 기업경영의 척도는 민첩한 시장 대응성, 짧은 업무 리드타임, 최소의간접비, 최우량의품질및서비스등이다. 지금까지의 효율과 통제라는 기업의 경영철학은 혁신 · 속도 · 서비스 · 품질 등의철학으로바뀌어야한다. 컴퓨터와 IT기법의등장은과거부터답습되어오던기업경영의원칙에대변화를일으키고있다.

그러나업무패턴은 그대로 두고 업무방식의단순한 지원만을통해서는 원가, 시장 및 고객대응성, 업무시간 등의 개선은 가능하지만, 소기의혁신을이룩하기에는미흡한것으로보인다. 정보기술을통하여기존의업무방식과프로세스의개선및효율화정도가아니라, 새로운경영환경에적합한최적의프로세스와새로운콘텐츠를설계하고 그에 맞는 업무패턴으로 과감하게 변신을 유발할 때라야만소기의혁신효과와경쟁력을창출할수있는것이다.

R&D투자를 더욱 강화해야

硏硏硏 최근지식노동자들의생산성향상이경영합리화의주요영역으로부각되고있다. 생산부문의자동화가진전됨에따라총생산비중에상대적으로큰비중을차지했던생산노동자의임금이기술개발 및설비투자로대체되고, 생산노동자의임금의비중이상대적으로작아지는대신지식노동자의급료비중은증대되고있다.

즉, 지식노동자가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점차 증대되어 감에 따라 자연히 비용통제의 주요 대상으로 지식노동자의업무생산성이주목을받기시작하였고, 이제지식노동자의생산성이기업의경쟁적우위를확보하는데있어서주요한전략이되고있는것이다.

경북대 조성표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수익성 · 성장성 · 생산성 등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연구개발(R&D)투자가 많을 수록 기업의매출액성장률이높고, 영업이익과의관계에서연구개발집약도가높을수록수익성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연구개발집약도가 2% 이상인 기업들은 지난 4년간 주가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이어서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생산성 및 시장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밝혀졌다.

한편 연구개발 집약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는 전자부품과 통신장비제조업체로서매출액의 4.9%를 R&D에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R&D투자확대와적극적인기술개발의강화, 촉진만이기업의 살 길이며,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경쟁에서 탈락, 도태되게 마련이다. 최근당사도최소한의기술연구인력으로현장지원에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경쟁력과 영업력 창출의 자원인 고급기술연구 인력의확보와양성을 위한과감한 투자확대가절실히요청되는시점이다.

위기를 절대기회로 삼자

硏硏硏 지난 한해에 세계적인 초대형 회사인 엔론, 그로벌크로싱, 폴라로이드사 등 257개나 되는 미국 기업들이 도산을 하여 문을닫았다는보도를접하였다. 이렇듯대격변의시대에우리회사는 지난해에 2차 출자전환을 무난히 실시하였고, 동시에 고정자산의 유동화와채무상환노력에총력을 경주한결과, 금년상반기까지재무구조를획기적으로개선함으로써회사의중장기성장기반을확고히하였다. 이러한과업의달성은채권금융기관의당사재도약에대한확고한신뢰의소산임은물론, 그동안우리임직원일동이혼연일체가 되어 온갖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않고합심, 노력하여일궈낸 큰 업적인 것이다. 또한 당사는 그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미르넷그룹웨어엔라이스시스템 · 기획/관리시스템 · 자금회계온라인시스템 · 영업정보시스템 · 공사관리시스템 · 공사지원시스템 등 꾸준히확보해온 경영인프라와 전임직원의 전통적인 단결력의소중한자원을갖고있다.

따라서 우리임직원 일동이 더욱 일치단결하여 직원 각개의 창의력발휘와전사적중지를모아 ‘ 위기를절대기회로삼자 ’는 투지하에 과감한 업무혁신과 수주활동을 전개하여 수익기반을 확대해 간다면금년도경영목표및 MOU를충분히달성하고, 소기의워크아웃졸업도반드시실현해낼수있다고확신하는바이다.

건설기술|쌍용 연구지에 대한 바람

硏硏硏 본 건설기술|쌍용 지는 당사 기술력의 상징이요, 경쟁력의산실이며, 현장의기술시공의향도로써, 관련직원들은자긍심과사명감을갖고제반현장의창조적경험기술과기술연구실의개발 기술들을 그룹웨어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에축적하여기술공유와전파활용에기여토록 함은 물론, 본지를 통한 건설기술의 집대성과선별에 의한 신기술등록을적극유도하고, 한층차원높은‘ 고도기술|쌍용건설 을 창조해감으로써산학계에서알찬‘ 건설기술의표상 으로발전해가도록당부하는바이다.